

ISSUE BRIEF 2017

vol.6

서울시 자치구의
시민대학과 시민교육 운영



ISSUE BRIEF 2017

vol.6

서울시 자치구의 시민대학과 시민교육 운영

contents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‘대학’이란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| 02 |
| ‘아카데미’란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| 04 |
| 다른 명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| 06 |
| 시사점 | 08 |



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제를
‘취미교양’ 위주에서 ‘시민교육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많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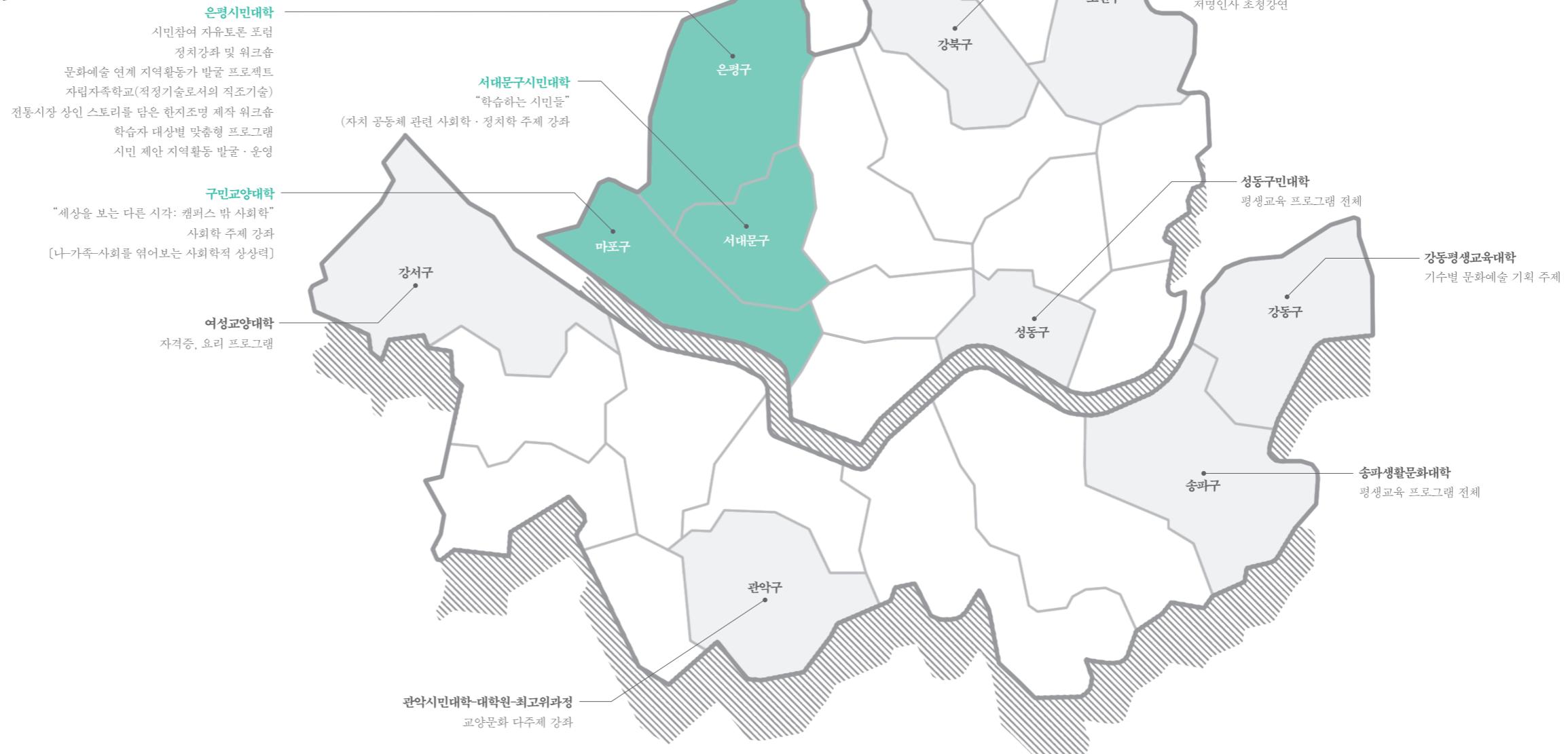
서울시는 기존 시민대학을 ‘서울자유시민대학’으로 확대 개편해,
수준 높은 인문교육과 시민교육을 제공 예정
다만, 각 자치구는 ‘대학’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개설해,
서울시민대학이 이것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의문 많음



본 자료는 올해 9월 제2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에서 발표된
“지방자치단체 시민교육의 정체성 모색”(강대중 · 석정아, 2017)의 자료를
자치구 담당자 조사를 통해 수정 · 보완해 재분석한 결과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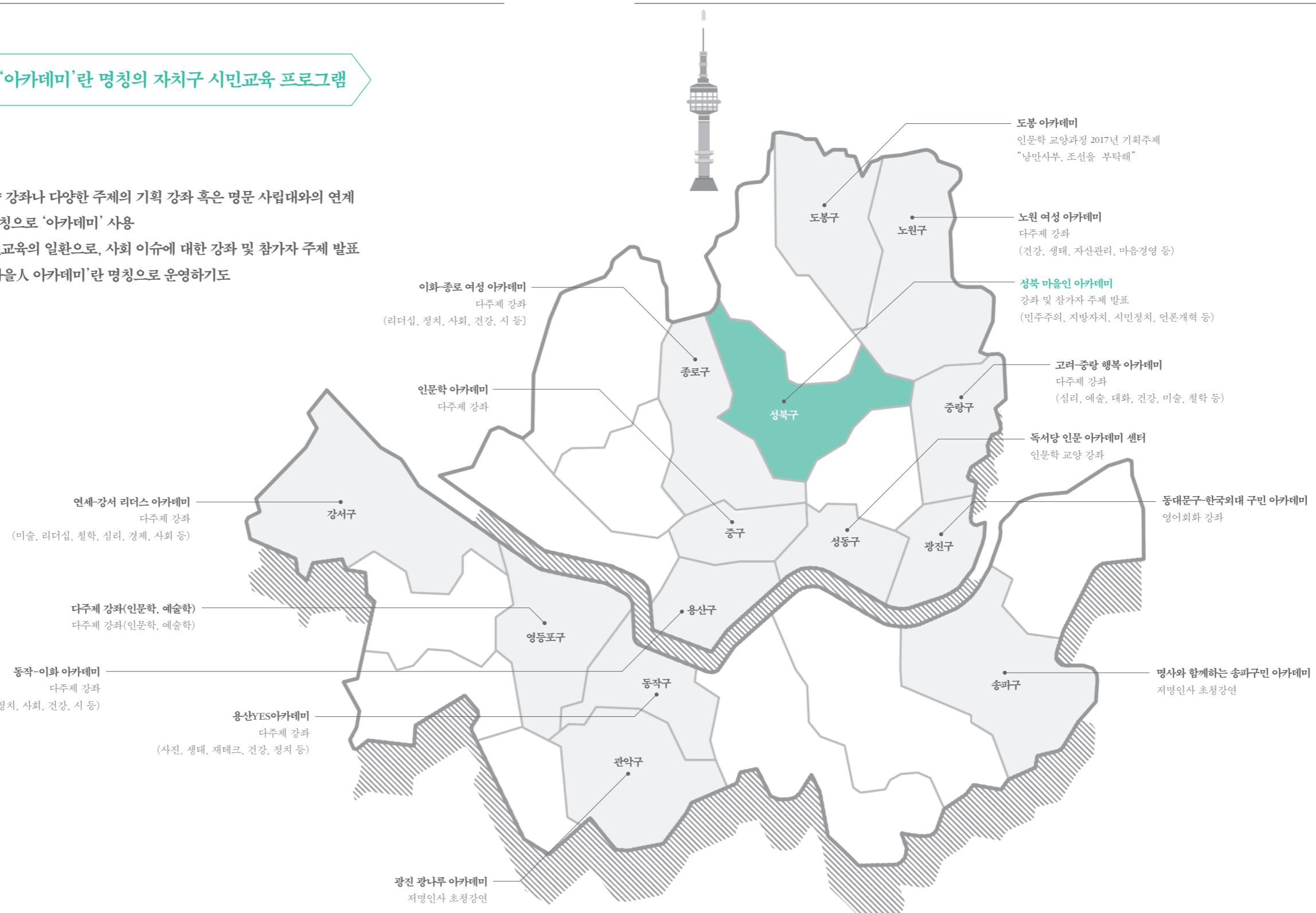
1. '대학'이란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

- 자치구 제공 프로그램의 대표 브랜드로 '대학'이란 명칭 사용
-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나 명사 초청강연의 명칭을 '대학'으로 붙이기도
-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 시민대학은 시민교육 목적의 사회과학 프로그램 운영
- 은평시민대학은 일상의 문제와 질문을 참여해 해결해 가는 일본 '시부야 대학'형의 프로그램 개설하기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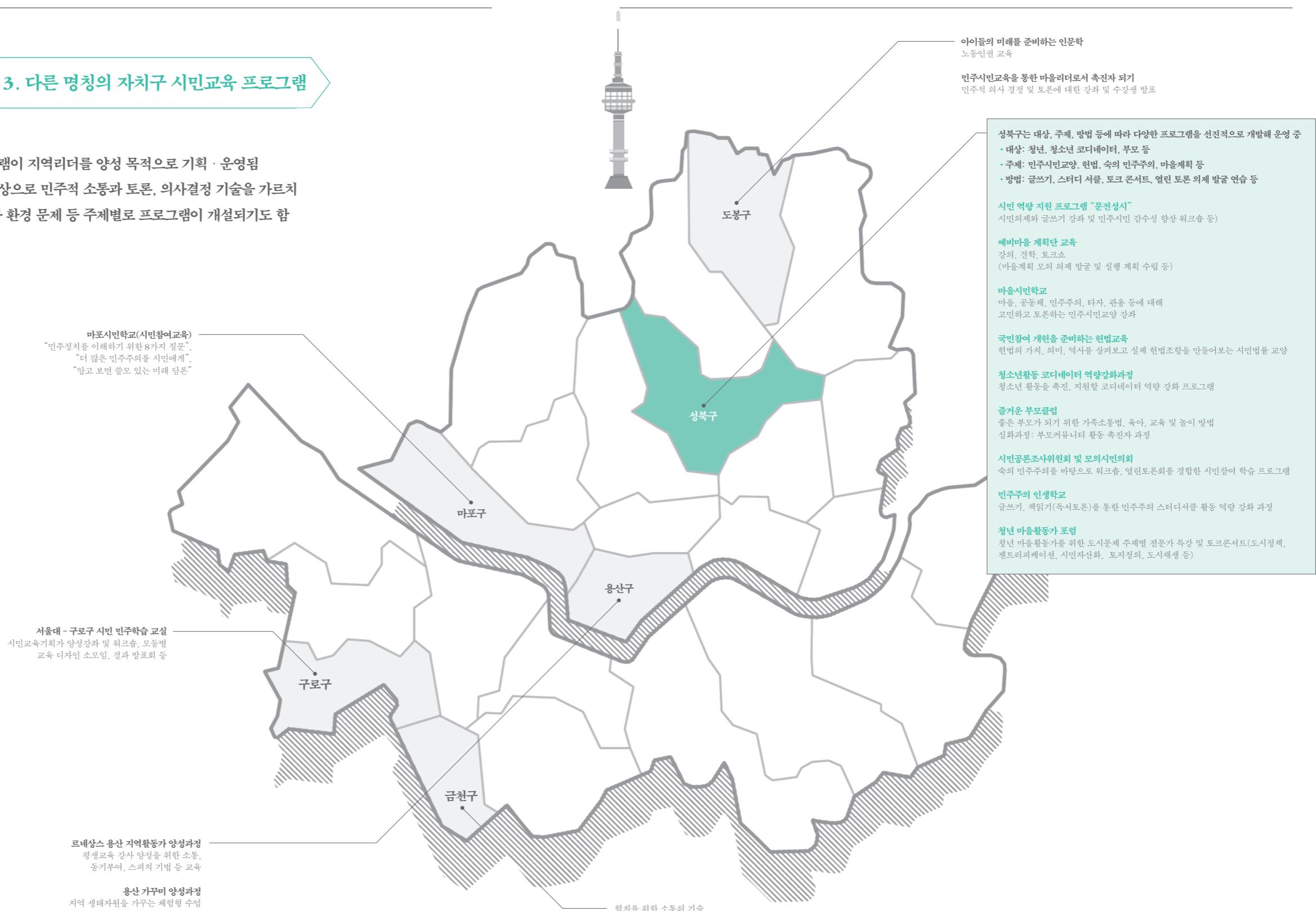
2. ‘아카데미’란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

- 명사초청 교양 강좌나 다양한 주제의 기획 강좌 혹은 명문 사립대학의 연계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‘아카데미’ 사용
 - 성북구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, 사회 이슈에 대한 강좌 및 참가자 주제 발표 프로그램을 ‘마을人 아카데미’란 명칭으로 운영하기도



3. 다른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

- 다수의 프로그램이 지역리더를 양성 목적으로 기획 · 운영됨
 - 예비리더를 대상으로 민주적 소통과 토론, 의사결정 기술을 가르치
 - 일부,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주제별로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도 함



시사점

1. '대학'이나 '아카데미'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 많음

- 자치구 제공 프로그램의 대표 브랜드로 '대학'이란 명칭 사용
-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나 명사 초청강연의 명칭을 '대학'으로 붙이기도
- 명사초청 교양 강좌나 다양한 주제의 기획 강좌 혹은 명문 사립대학의 연계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'아카데미' 사용

2. 일부 자치구는 명칭에 걸맞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중

-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 시민대학은 시민교육 목적의 사회과학 프로그램 운영
- '은평시민대학'은 일상의 문제와 질문을 참여해 해결해 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설
- 성북구는 대상, 주제,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

3. '서울자유시민대학'이 명칭이 아닌 내용 면에서 충실히 운영된다면 충분히 차별점 가질 것

- 자치구 프로그램은 '대학'이란 명칭을 브랜드 수준에서만 사용
- '서울자유시민대학'은 자치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높은 인문교육과 시민교육을 제공한다면 내용과 기능적 측면에서 충분히 차별점 가질 것
- 성북구와 은평구의 사례를 참조해, 시민참여형으로 대상과 주제, 방법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·개발해 나갈 필요 존재



ISSUE BRIEF 2017-6

ISSUE BRIEF 2017-6

발행처 |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
발행인 |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
발행일 | 2017년 12월
디자인 | 마가리_변영옥, 이한수

 SMIL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

주소 | (04168) 서울 마포구 새창로 7(도화동) 14층
전화 | 02-719-6093
팩스 | 02-2149-1268
홈페이지 | <http://smile.seoul.kr/>